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2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토틀생황제초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토틀생황제초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2014 오송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00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35 영성기행 한국의 명소
1 30 뉴스 특급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숨 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재)	1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00 건강클리닉
2 40 직언직실	05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재)		15 경제대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토크콘서트 화통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시사기획 창(재)	00 유후와 친구들 2(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경제 뉴스 10 윙크 쇼타 40 헬로킴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10 SBS 이슈인사이드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선단 55 토틀생황제초(재)	00 TV 유치원 콩다콩 30 2014 영화의 바다로	30 똑?똑! 키즈스쿨	00 바이올론즈 30 30 구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투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민선 6기 특별기획 함께 가면 길이 된다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관촬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숨 터	0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0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디시보는 볼륨의 이순신	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5 희망 릴레이 강연 청춘, 희망을 품다	15 달콤한 나의 도시
12 30 라이벌매치 압도적 7(재) ①: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50 네트워크 기획 문화선학 ①:30 특집다큐 <글로벌 도시전쟁>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크 <애블라와 싸우는 사람> ①:35 한국인의 발상(재)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다이어리 ①:10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걸쳐클럽



이유리



송윤아



문정희

주말 안방극장 장악한 세 여배우

‘왔다! 장보리’ 이유리... 기상천외한 악행

‘마마’ 송윤아·문정희... 예술적인 신파연기

드라마의 완성도와 수준을 놓고 혀를 차도 어쩔 수 없다. 개연성을 두고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연기는 일단 한번 보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 같다. 통속극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던 불꽃 열연이 안방극장을 수놓는다. 종영을 1~2주 남겨둔 MBC TV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34)와 MBC TV ‘마마’의 송윤아(41), 문정희(38) 얘기다.

이들의 열연은 지상파 방송3사가 아침차게 내놓는 월화극과 수목극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이라 더욱 화제다. 또 힘을 준 시대극이나 사극도 아닌, 평범한(어쩌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는) 통속극 속에서의 열연이라 더욱 빛난다.

◇이유리, 심은하의 ‘청춘의 덫’ 밥심 이후 최고 연기=종영을 단 2회 남겨둔 ‘왔다! 장보리’는 역대 연민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상태다. 연민정의 악행이 하도 기상천외하고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전개되는 까닭에 ‘왔다! 장보리’는 뒤로 갈수록 막장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제작진은 주인공 보리의 ‘닥치고 박애정’으로 조금이라도 면피를 해볼까 바라는 것 같지만 궁지에 몰린 연민정의 발악과 그 내용의 격렬한 전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연민정을 맡은 이유리가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신들림듯한 연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섬뜩한 표정으로 간악한 모사를 꺾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천덕꾸러기 내뱉다가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철철 울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웃어짓는 이유리의 연기는 점입가경이다.

뒤로 갈수록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연기를 하고 있다. 특히 울다가 웃는 사이코패스 같은 연기는 압권이다. 유산한 후 오열하는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기자의 한없이 가볍고 영성함 표현이 아니라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180도 변신을 이유리는 자유자재로 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그 보여준 광란의 밥 먹는 연기는 15년 전 심은하가 ‘청춘의 덫’에서 보여준 그 유명한 밥심 이후 최고의 연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춘의 덫’에서 심은하는 홀로 키우던 딸을 사고로 잃은 후 정신줄을 놓다가 털고 일어나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슬픔이 독독 묻어나는 이 처연한 밥심은 두고두고 회자가 됐다.

이유리는 이날 두 차례 밥심을 선보였는데 둘 다 백문이아붙어 일견이다. 하나는 재벌가 며느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 끈인 임신을 했다는 기쁨에 기고만장해서 토스트를 우적우적 사남게 먹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그 급속같은 태아를 유산 해놓고는 시치미를 떼고 시어머니 앞에서 비빔밥을 숟갈질 틈 없이 계속해서 먹여치우는 장면이었다.

두 장면 모두 이유리는 입안 가득 음식을 밀어 넣은 채 대사를 주저리주저리, 명료하게 뱉어냈다. 동시에 웃다가 능청 떨다가 분노하는 감정연기를 소화해냈다. 행연이 어렵다.

◇송윤아·문정희, 시너지 효과 극대화=종영까지 4회 남은 ‘마마’도 그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 전형적인 신파극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두 여주인공인 송윤아와 문정희의 내공이 흠뻑 묻어나는 연기 덕에 시청의 몰입도를 높인다. 고생 끝 성공했지만 시한부를 선고받아 생때같은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한승희와 그런 한승희가 사실은 자기 남편의 아이를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온 마음을 다 썼다가 뒤늦게를 맞은 서지은이 주고받는 감정과 이야기는 통속극의 상투성을 벗어난다.

그 나뭇잎이 그 밥이 아니라, 같은 재료라 해도 인물 속으로 들어간 배우의 연기가 어머니에 따라 신파극 연기도 예술의 경지가 될 수 있음을 송윤아와 문정희는 보여준다.

한승희로 분한 송윤아의 땅으로 깔질 것 같은 차분하고 가라앉은 톤과 서지은으로 분한 문정희의 티없이 맑고 순수한 톤이 부조화 속 조화를 이루며 양상을 낸다.

실제 현실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송윤아는 오랜만의 연기 복귀작에서 인생의 깊이가 한 뼉 깊어졌음을 연기에 녹여내고 있다. 위양 맡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세상에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애끓는 모정,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보인 친구 서지은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미안함이 모두 깊은 회한 속 절절하게 표현된다.

문정희는 구김살 없이 자라나 순진하고 애교가 넘치는 밝은 캐릭터에서 하루아침에 치욕적인 배신감에 휩싸이는 인물을 설득력있게 그리고 있다. 초반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줌마를 연기하며 디테일이 깨달음이 살아있는 연기를 펼치더니, 후반에는 배신감에 휩싸인 서지은의 심리 변화를 시청자가 마찰을 없이 따라갈 수 있게 이음새 없이 그 변화를 소화해내고 있다.

덕분에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 한승희와 서지은이 서로에게 향해 보내는 애절한 마음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청자에게 전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들의 기막힌 사연과 처지가 이 두 배우를 만나 손에 쥘 듯한 생명력을 띠게 됐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우아를 부탁해>	14:30 미술심학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14:45 미연마이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30 EBS 뉴스
07:00 세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5 여단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15 근(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7:30 책과 땅(재)	<바람과 초원의 물, 몽골>(재)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초대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러시아 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EBS 조식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경주>
08:20 뽀뽀뽀 뽀로로(재)	13:05 지식체널e	16:35 윈더볼츠	21:50 EBS 다크 프라임
08:35 방귀대장 풍뎡이	13:10 부모광장(재)	16:45 Why-최고!나 호기심탐지(재)	22:45 극한직업
08:50 Why-최고!나 호기심 탐지	13:40 내 이름은 펄기	17:00 방귀대장 풍뎡이(재)	23:35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09:05 바이오탐색의 파오파오(재)	13:50 뽀뽀뽀 뽀로로	17:15 바이오탐색의 파오파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00 세계마을 타기톡	17:30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체널e(재)
09:35 따개비 루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뽀뽀 뽀로로	24:10 한국영화특선 <철수와 만수>

EBS플러스1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사>	11:4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한국사>
01:50 " <한국지리>	12: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수학 I B형>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0 " <국어 B형>
02:30 " <영어-듣기>	14:00 " <물리 II>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화학 II>
04:10 " <과학>	15:40 " <생명과과학 II>
05:00 " <한국사(해)>(재)	16:30 " <지구과학 II>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영어>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3:00 " <영어독해연습①-종합편>

EBS플러스2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사회5-2>
07:30 선철한 수학 익힘풀이 <6-2>	16:50 " <사회6-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6-2>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8:00 TV 중학 <영어3-2>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40 " <수학3-2>
09:50 " <수학(해)>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0:30 " <도덕>	20:00 EBS 인문학 특강
11:10 " <국어③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 <수학2(해)>	21:40 한국기행 <역사(해)2>
12:30 등업산공 <사회1>	22:00 등업산공 <역사(해)2>
13:10 " <역사>	22:40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중급)
13:50 " <역사2>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 3
14:30 " <사회2>	24:00 백점공략 <수학(3)>
15:20 만점왕 <사회3-2>	24:30 " <과학(3)>
15:50 " <사회4-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음 9월 15일 壬子)

子	36년생 평소애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다. 48년생 냉정하게 판단하자. 60년생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72년생 정면으로 돌파해야 위기를 모면한다. 84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77, 55	午	42년생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금과옥조가 될 수도 있다. 54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다. 66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78년생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45
丑	37년생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49년생 헛수고하고 있다. 61년생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해 낼 것이다. 73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85년생 반복적 청산하자. 행운의 숫자 : 02, 68	未	43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두어 할 때가 되었다. 55년생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67년생 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79년생 불합리하다면 사전에 제거하라. 행운의 숫자 : 36, 65
寅	38년생 지리멸렬하여 왔던 소강상태를 끝내게 될 것이다. 50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쉽다. 62년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일로 인해서 피로가 쌓이겠다. 74년생 진흙탕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자. 행운의 숫자 : 10, 41	申	44년생 신선히는 있지만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안전하다. 56년생 제외한다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68년생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운 것이다. 80년생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73, 22
卯	39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클 수 있다. 51년생 맡은 바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 63년생 보류되었던 바가 재개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 75년생 이는 바라 하더라도 확인과 점검을 습관화 하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52, 44	酉	45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배제하자. 57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도 나타나게 되느니라. 69년생 상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81년생 소문은 사실과 다르므로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0, 31
辰	40년생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이동수나 매매운이 원활하겠다. 64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76년생 전혀 다른 국세로 바뀔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9, 58	戌	46년생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라. 58년생 쫓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리라. 70년생 막연하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82년생 큰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대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2, 05
巳	41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53년생 믿어 붙이다 보면 결말이 나게 되어 있느니라. 65년생 시사각각 변하는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쫓다 있게 조처하라. 77년생 원인을 찾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13	亥	47년생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59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71년생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3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87,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직장인 필독 웹툰 ‘미생’ 드라마로 재탄생



tvN 드라마 ‘미생’ 17일 첫 방영

지난 여름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두편이 개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바둑에서 출발한 드라마가 선보인다.

오는 17일 오후 8시40분 첫선을 보이는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다. 만화작가 윤태호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 회사원들의 분투와 우정이 살아있다. 주인공 장그레 역은 그를 제국의아이들 멤버 임시완(사진)이 맡았다. 장그레는 바둑에 대한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한다. 6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임시완은 “나 역시 연습생과 가수 시절을 거치며 몸 담고 있는 곳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데뷔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그레가 입사하는 게 끝이 아닌 시작이다 나 역시 데뷔도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사외구성원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데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때의 경험과 느낌을 살려 장그레

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은 통찰력과 승부사적 기질을 가졌지만 ‘곤 떨어진’ 워커홀릭 오상식 과장을 연기한다. 오상식은 장그레의 멘토가 된다. 얼마 전 드라마 ‘닥터 이방인’을 끝낸 강소라는 ‘미생’에서 당당한 신입사원 안영리로 분한다. 거친 남자의 세계에 들어간 당찬 여성이다.

강소라는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러브라인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연애보다 일에 비중이 많은 드라마를 하고 싶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러브라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 강하늘, 김대명, 변요한까지 6명의 배우가 종합무역상사 원터내셔널의 셀러맨 인생사를 그려게 된다. 제작진은 “원작 웹툰은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직장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셀러맨의 교과서’라는 애칭을 얻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며 “드라마 역시 웹툰의 재미를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원익 PD는 “미생의 중심은 장그레와 오과장에서 느껴지는 남자들의 우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